

# 住家の 變遷

申 榮 勳

나무그늘이나 바위틈에서 露宿하여 아침이슬 촉촉히 맞고 새벽의 선뜻한 바람을 쏘이고 나면 내집이 과연 좋구나 하는 생각이 난다.

이 때의 내집은 비록 草家の 三間이어도 좋다. 高大廣室이 아니어도 비바람 피할 수 있는 편안한 자리가 깔려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原初인들이 露宿을 면하려 하였을 때 地域에 따라 두가지 현상이 벌어졌으리라고 想定된다. 하나는 自然의 洞穴을 찾아 거기에 자리를 장만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自然에서 얻어지는 재료를 써서 적당히 空間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아직 이것을 집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

맹수에게 잡혀먹힐 자리나, 큰 불에 떠나려갈 자리를 피하여 은신처를 마련하였다손 치더라도 인간생명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던 것은 地氣의 毒이었다. 毒이라고 後代에 부르던 이 地氣의 毒은 濕氣에서 연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의 과제는 地濕을 피하는 길이 최우선의 급무이었다.

한 지역에서는 큰나무에 의지하여 동지를 틀고,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장안하였다. 地濕에서 떠난 쾌감에서 백성들은 즐거웠고, 그것을 창안한 봄을 有巢氏라 하고, 聖人の 대접을 하였다. 말하자면 집이 시작된 셈이다.

추운 지방에서는 그것으로는 만족되지 않는다. 습기보다는 얼어죽는 일을 방지하여야 되었기 때문이다. 춥고 긴 겨울을 지낼 집으로 여러가지 방도가 시험 되었겠지만 地熱에 의지하는 움막집이 그들에게는 가장 적합하였다.

하나는 地濕을 피하여 地表에서 떨어지는 집을 지었고, 또 하나는 오히려 地下로 숨어드는 방식을 택하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 난 것이다.

집은 이 두가지 현상이 발전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는데 地表에서 떨어지려는 性向에서 高閣의 다락이 발전하고 地下로 파고들려는 잠재적 의식에서 地下의 構造物들이 꾸준히 만들어 지게 되고 마침내는 地下와 地上을 연결하는 高層建物の 구조방식이 장안되기에 이른다.

地上과 地下의 구조물이 확연히 구분되던 시기가 있었

다. 움막집의 地濕을 피하여 地表에 집을 露出시키기 시작하면서 살림집의 대부분은 地表를 地盤으로 하고 지어지게 된다. 이 시기의 地下構造物은 幽宅에 국한 되는데 이 幽宅, (陵·墓) 또한 훌륭한 住家이었다. 原初社會를 벗어나 國家가 樹立되고 王權과 貴族의 그룹이 이루어져 경제적인 蓄積이 어느정도 되었던 시기의 幽宅은 당시의 思想과 信仰에 쫓아 地上建物 못지않은 거대한 地下構造物을 축조하도록 유도되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疆域에서만 국한된 극히 제약적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전세계 어느 인류나 겪어온 경험이었다.

한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항들을 흔히 한 지역에 국한시켜 생각하려는 것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의 通念이며, 돌연 한 지역의 特性인양 착각되는 수가 있으나 실제로 검토하여 보면 原初時代住家の 形狀은 地上, 地下에서 地表로 집약되는 과정을 밟는게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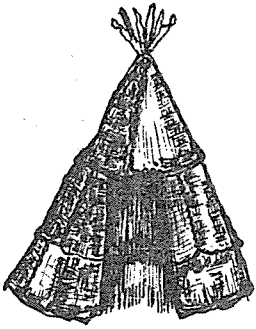
지구 곳곳에서 벌어진 이런 形狀을 아주 自然스러운 發生이어서 각기 지역의 自然의 與件에 따라 그 집의 形容은 결정되며 거기에서 그 지역의 살림집들이 틀을 마련하게 된다. 설사 그런집의 外形이 비슷비슷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自然에서 얻어지는 一次的인 資材에 의한 制約에서 오는 共通點에 불과한 것이다.

이웃간의 흡사한 形狀을 두고 더러는 한지역의 것이 다른 지역으로 傳播된 듯이 생각하는 수도 있으나 그것은 아직 공정한 판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道具는 어느 종족을 막론하고 石器이었다. 지금도 原始林속의 原初的인 생활을 하는 種族들은 石器를 사용하고 있다는 탐험가들의 최신 보고서도 우리는 그점을 확인한다.

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직 地表로 집약되기 이전의 집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要件을 갖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는 橫的인 連繫보다는 縱的인데 그 原因이 있었으리라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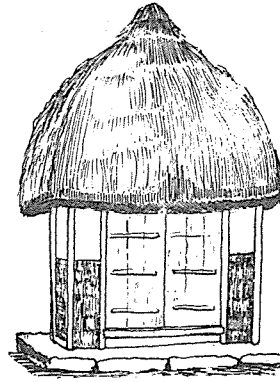
뜰에서 나는 풀을 걸어가 나무가지를 이용하여 집을 지었을 때, 나무가지를 고정시키거나 엮는 방법은 대체로 흡사하였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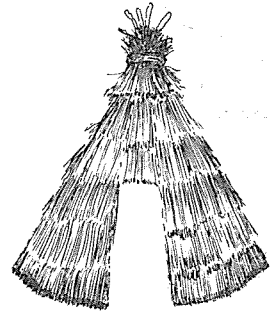
통리지방의 圓錐形 住家



高宗因山時의 토막집 (廬幕)



慶山 雲山面竹砂里 성황당 (토막집)



원추형 두엄 (풍기지방)

어쨌서 그렇게 흡사할 수 있었느냐는 의문은 그것을 만든 인간에게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이라는 공통의식속에서 발로되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공통의식중에서 우리는 自然과의 對話를 들 수 있다. 이 대화는 自然의 觀察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觀察은 변화있는 自然이 그 대상이 된다.

自然의 變化는 때로 인간에게 神秘를 안겨준다. 거기에서 神이란 畏敬의 대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결국 自然과의 대화는 神과의 대화로 연장된다. 神과의 대화에서 인간은 사물의 개념을 구체화한다. 집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개념은 변화 있는 자연에서 얻어낸 경험을 토대로 하여 要件을 갖추어 나가게 된다.

집의 변천은 결과적으로 이런 要件의 충족을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되며 그것은 인간생활의 理想에 목표를 둔다.

그렇게 결과되던 막연한 結構의 집의 수준에서 벗어난 단계에 이르면, 벌써 原始社會에서 部族國家시대에 이르게 되며 建築社會가 組織되어 집의 大形化와 아울러 집의 형성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한다.

기능만을 위주로 加飾없이 지어지던 집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장식의 요구되고 그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훈련된 사람이 전문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시대에 도달하였 때 집은 살림집과 공공의 집으로 나뉘게 된다.

王權이 확립되고 王政을 위한 시설물이 필요하게 되면 나뉘어진 길은 갑자기 확대되어 살림집과 공공의 건물은 완전하게 분리된다.

건축사회의 관심은 공공건물에 집중된다. 공공 건물을 위하여 지식인들이 동원되고 王權이 伸張되면 그 權滅의 象徴을 강조한 온갖 手段이 건축물에 도입된다. 이 때 國際交流나 外國建築의 情報획득이 希望되며 이 희망의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한다. 공공 건물의 向上은 이런 노력에서 추진되는데 이런 추세는 지금까지의 一次的인 資材의 採集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一次 資材를 加工하거나 새로운 資材를 生産해 내는대로 치닫게 된다. 일단 이렇게 방향이 잡히면 각종 資材들의 需要가 증가되

고 그 需要에 충족을 위한 대량생산의 수단이 강구되며 그 수단의 강구는 신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게 된다.

이웃 나라사이의 交流되는 정보의 흐름에 따라 資材의 流通이나 신제품의 개발이 자극되고 國際的인 상호자극에서 하나의 규범을 탐색하여 그 資材를 善用할 法式과 技法과 樣式이 도출된다. 훈련된 사람들의 집단에 의하여 法式과 技法이 전수되고 그들의 人文的 背景에서 樣式이 일어나와 집은 單純性에서 벗어나 多彩로워지며 집의 用途에 따른 多岐的인 발전이 이룩되는 多樣性 向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三國時代 初에 이런 社會相이 확립된다.

살림집은 아직도 미미한 변화에 머물러 있다. 발전되는 공공건물에서 돌아와 쉬는 안식처는 공공건물만큼 변용시킬 충분한 여건이 아직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王權의 유지를 위한 制約이라는 外部的인 사항도 작용하고 있어서 변화의 속도는 자꾸 제자리 걸음에 묶이고 만다. 이렇게 제자리 걸음에 머무는 까닭중의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意識構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例들어 본다. 우리네는 山谷間에 살기 좋아하는 民族性을 지녔다. 옛부터 그랬대서 중국측 기록에 그점을 특징지어 되풀이 적어놓았다.

만주, 반도를 통털어 山이 많은 地形임에는 틀림없다. 산악국가라고 부를만큼 山이 많다. 그러니 불도 많아서 곳곳에 불출기가 있고 江이 있다. 그렇다고 전혀 들(野)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몇일을 가도 끝이 없는 광야가 계속되는 그런 들은 없더라도 하루를 조히 걸어야 끝을 보는 그런 들은 도처에 있다.

마음만 먹으면 들에 집을 짓고 살 수도 있었는데 그들을 피하여 山谷間에 살기를 좋아하였다. 지금도 시골의 마을이 들보다는 산기슭쪽에 자리잡고 있음에서 그 일단을 볼 수 있는데, 山谷에 살려는 까닭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山은 仁者가 좋아한다는 格言이 있듯이 山엔 自然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의 神秘에서 인간이라는 개체를 의식하



(全北 南原의 智異山 麓)圓形平面的 집

였을 때 자연을 畏敬하려는 마음이 짐이 일어나오 그 심정에서 神의 權現을 깨닫고 나면 自然에 향한 겸손한 자세가 일어나 거기에 안기려는 마음이 된다. 神仙을 想定하고 長壽의 秘法을 탐색하고 自生의 不老草를 神의 恩賜로 받아드리려는 소박한 심정은 집을 짓되 자연에 안기려는 자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自然에 들어가려는 자세는 자연을 바라다 본다는 태도보다, 자연 그것의 연장이 인간이라는 자세이므로 집을 자연에 없으려 하지 않고, 자연속에 넣어 하나도 부자유스럽지 않도록 하였다. 이런 心性은 마치 造物主와의 合作으로 자연의 한 虛點을 인간 美感으로 보완하련다는 생각과 相通하는 것인데 이는 비단 집에만 국한되었던 현상은 아니고 바위에, 산에 살면서 人工을 加하여 완성시키던 신비한 彫刻과도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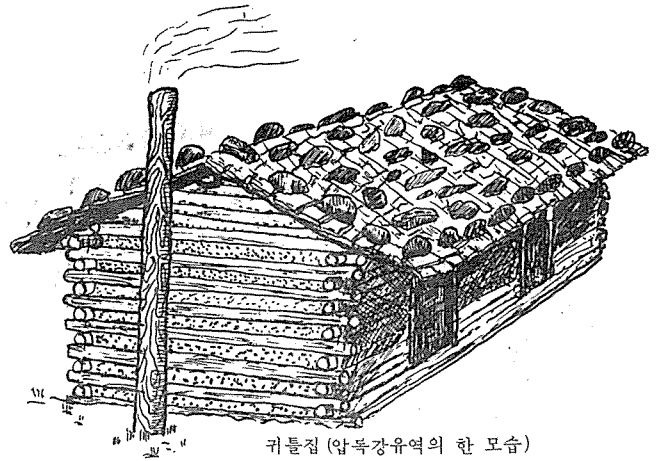
자연속의 집이라는 생각은 전혀 加飾되지 않은 心性의 表現으로 만족된다.

기능이 위주이므로 사람의 크기에 알맞는 空間의 형성만으로 집은 완성되며, 이런 생각은 公共建物에도 강력하게 작용하여 엄청나게 규모가 큰 집을 짓고 싶어하지 않았다.

넓은 광야에 우뚝 솟은 巨大한 建物이 王權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느끼는 생각과 산기슭에 알맞는 크기의 집을 지어 自然에 넣는다는 생각과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차이는 모든 文物에도 投影되어 曠野文化와 山谷間의 文化는 체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갖고 발전하게 되었다. (광야의 문화는 중국문화일수도 있다.)

자연에 적응하는 의식에서 표현된 집은 자연이 지닌 여건에 가장 민감하다. 자연의 여건이 집에 미치는 영향중의 큰 것을 손꼽는다면 다섯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地美의 여부, 둘째는 氣溫의 차이, 셋째는 습도의 차이, 넷째는 風向과 速度, 다섯째는 太陽의 高度(角度)이다.

첫째의 地美는 자연에서 쉽게 채집되는 資材에 연결된다. 原始林이 무성하여 木材를 쉽게 구할 수 있다. 草



귀틀집 (약동강유역의 한 모습)

材가 좋아서 엮어 사용할 수 있다. 粘土가 좋아서 이겨 사용할 수 있다. 岩石이 좋아서 가려 사용할 수 있다. 獸皮가 획득되어서 골라 쓸 수 있다던가 하는 自然이 供與하는 내용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의 氣溫은 크게 北·中·南部地域으로 나누어 北쪽 지역은 메마른편이면서 긴 겨울에 몹시 춥고, 中部地域은 사철이 분명하며 알맞게 춥거나 덥고, 南部地域은 분명히 더운편에 속하여서 북쪽의 집이 폐쇄적이어야 할 때, 남쪽의 집은 개방적이어도 좋으며, 중부의 집은 반은 폐쇄, 반은 개방적이어도 좋았다.

셋째는 습도인데 북쪽은 메마른 편이나 겨울에는 많은 눈이 나리므로 추위를 피하여 땅을 파고 들어가도 그렇게 습기에 고통스럽지 않고, 겨울에 나린 눈의 무거운 짐을 지탱할 튼튼한 지붕이 소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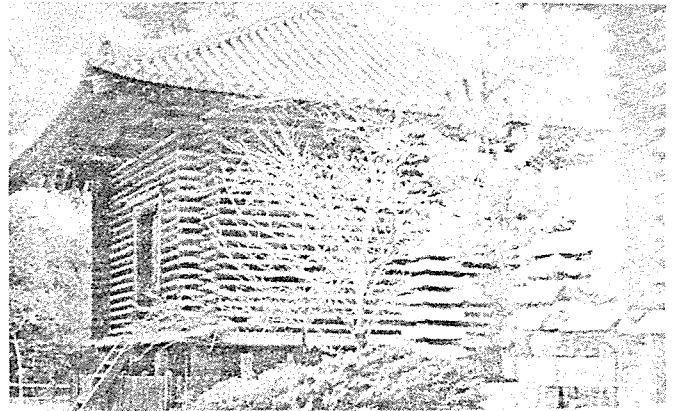
넷째는 風向과 速度인데 겨울에는 北西風, 여름에는 東南風이 주로 불어오는 경향이므로 여름을 시원하게 내기 위하여 집의 방향을 설정하고, 겨울의 북풍 한살을 막기 위한 설비가 집에 소용되었다.

다섯째 太陽의 高度는 南中高度를 의미함인데 이는 日出과 日照와 日沒과 연관된다. 겨울에 낮게 뜨는 해의 별을 집에 받아드리기 위하여 지붕의 각도와 깊이를 설정하여야 되었고, 여름의 피약별을 막기 위하여 지붕의 물매와 처마 깊이를 고려하여야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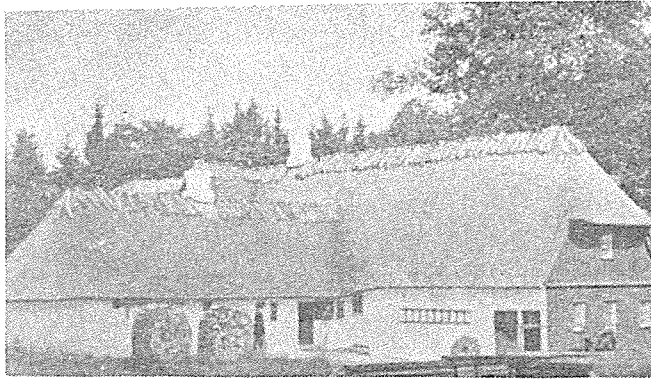
이런 다섯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그 모습이 굳어진 것이 오늘에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草家가 되었다. 良質의 木材, 粘土, 石材, 草材를 사용하여 기둥과 벽과 구름을 만들고, 지붕을 구성하였는데 습기를 피하여 地表에 그 基盤을 마련하였고, 태양의 각도와 雨量을 고려하여 깊고 급한 경사를 갖는 지붕을 큼직하게 만들어 우산쓰듯 하게 하였으며,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하여 두꺼운 벽과 겹집이라는 배치법을 고안하였고 통풍과 습기의 제거를 위한 마루의 발전이 있었는가 하면 겨울을 지낼 온돌이 설비되었다. 바람과 태양의 日照를 고려하여



五臺山の 귀틀집의 한 모습



唐招提寺의 귀틀집



벤마크 民俗村의 초가집의 하나

南向과 東向의 집들의 坐向이 일반적이 되었다.

이렇게 定型을 이루기 까지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였다.

原始社會일때 狩獵, 採集의 食생활 해결 방도는 견고한 집이 사실상 무의미하였다. 먹이를 찾아 移動하는 그런 생활에 적합한 移動式 住家가 오히려 바람직하였다. 천막·초막·오두막집들이 한곳에 지어졌다간 이튿날 다른 지역에 다시 세워지는 것이 그들에게 좋았다.

농경사회에 들어서면서 집은 비로서 한자리에 뿌리를 박고 安住하게 되나 초기사회에서의 집은 그래도 流動性의 강하여 견고하고, 不滅의 집은 요구되지 않았다. 살던 사람이 죽으면 그 집을 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는 정도이었다.

王權이 확립되고 취락이 都市化되면서 영속적인 집들이 요구되었다. 이때부터 定型을 향한 착실한 행군이 시작되었다. 취약한 재료는 도태되고 견고한 구조가 요구됨에 따라 새로운 資材가 등장하게 되었고 道具의 金屬化로 훈련된 技能工에 의한 능숙한 처리가 盛行되어 집은 그 체모를 갖추는 당당한 모양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고 身分과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집의 形容에 차이를 들어내기 시작하였다.

이러는 동안에 대 南北移動이 진행되고 있었다. 추운 지방, 움막집에서 싹튼 온돌이라는 구조가 地表의 집에

다시 채택되고 그것이 南進을 시작한 것이다.

地濕을 위하여 나무에 의지해 짓거나 네기둥을 높이 세워 꾸미던 다락집(于闌)이 마루라는 얼굴을 갖고 地表의 집에 채택되면서 北上을 시작한 것이다.

장엄한 이 두 행렬은 어느 시기엔가 中部地域에서 만난다. 서로의 저항이 일단 마무리된 후 南進의 추세는 중부를 지나 차츰 濟州道에까지 이르고 마루는 중부지역에서 北上하여 압록강까지에 도달한다. 교차되는 동안 地表의 건물에는 온돌이라는 구조와 마루라는 구조가 共存하기에 이르고 두 異色構造는 하나의 建築組織으로서 채택되어 부자유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된다.

여기에서 우리네 특유의 살림집 組織이 定型化된다.

이런 大行進의 殘形을 오늘의 민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南海岸과 南쪽섬에서는 구들이 첨가된 형상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이 점점되며 북부지역에서는 고정되지 않은 뜰마루라는 형상이 구들에 걸드러져 있음을 볼 수 있다.

住家에서의 구들과 마루는 공공건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단적인 例를 寺刹에서 볼 수 있다. 朝鮮 王朝初의 건물로 알려진 康津의 無為寺 極樂殿에는 마루가 깔려있는게 현재의 상태인데 解体修理時 마루를 뜯고 보니 옛날에는 바닥에 搏(타일)을 깔고 마루 없이 지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마루는 後代의 添加인데 이런 첨가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마루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지었던 건물에 어느 시기엔가 마루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게 되었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온돌의 시설도 이와 마찬가지로 마루를 뜯고 온돌을 구성한 경우, 搏돌 바닥을 뜯어내고 온돌을 설비한 흔적이 南原의 廣寒樓등에서 보인다.

住家에서 分岐되었던 공공건물이 국제적인 교류에 따라 國際的樣式으로 처리되었던 것이 어느틈엔가 다시 住家쪽으로 기울어져 住家에서 定型을 이룬 마루와 온돌을 도입



1900년대의 서울 (東大門에서 鍾路를 바라다 본 모습)

하여 다시 變換하는 모습으로 되어진 것이다.

여기에서의 敎訓은 공공건물은 때에 따라 국제적인 요소를 첨가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되기도 하지만 결국 住家가 지닌 특성으로 되돌아가고 만다는 사실에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시사이며 앞으로 우리가 건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명심해야될 사항이다.

수천년동안 수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住家는 일단 定型化되었다가 거기를 기점으로 하고 또 變換하는 긴 여정을 걷고 있다. 이는 인간의 理想形 追求에서 原因되며 그 추구가 계속되는한 住家는 계속 변천되어 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유의하여야 할 것은 그 당시 그 집들은 그 때의 現代 建築이었다는 점이다. 그 現代建築을 밑바탕으로 하여 새시대에 적응할 현대건축이 나타 나면 어제의 現代建築은 古建築, 傳統建築으로 뒷전에 물러서게 되는데 이는 비단 과거의 현상만은 아니고 오늘과 미래에서도 야기되는 과정들이다.

오늘의 건축과 어제의 건축을 巨視的인 時間의 概念에서 보면 刹那에 존재하던 하나의 경험에 불과하다. 건축에서의 絶對란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어느시대에도 물흐르듯이 방향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前代의 것은 사라지고 새시대의 것은 등장한다. 이 소멸과 등장은 輪廻와 같아 언제나 되풀이되게 마련이다.

오늘에 우리가 傳統建築을 탐색하는 의도는 그런 輪廻의 법칙을 알아내려는데 있다. 참다운 住家의 理想形을 추구하는 向方의 옳고 그름을 저울질하려는 속셈에 있다.

住家는 언제나 人間과 깊게 연관된다. 平面의 設定은 人體의 규격과 직결되며 動線의 設定은 人間壽命과 연계되어야 하고 意匠은 人間의 美的 衝動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다운 住家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新刊〉

## 韓國建築史大系 (全10卷)

1. 韓屋과 그 歷史
2. 韓國古建築斷章
3. 韓國의 살림집
4. 韓國의 庭園
5. 建築과 文樣
6. 韓國의 石造建築
7. 韓國宮殿造營史
8. 寺社建築造營史
9. 建築과 彫刻金具
10. 丹青과 壁畫

東夷文化社 編

定 価 6,000원

연락처 73-9492

38-6382